소통으로 신뢰받는 의회 함께 만드는 행정수도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보도자료

제공일자	2026. 11. 25.(수)	**사진 · 영상**	사진(○), 영상(×)
보도일시	2026년 11월 25일(수)부터		
제 공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이순열**	☎044-300-7110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교통불편은 시민 몫, 운영비 절반도 세종 몫, 불합리한 세종~공주 BRT 분담구조 개선해야

- 출퇴근 교통정체에 시민 고통 가중… 조치원 BRT는 지연, 공주 BRT 운영비는 연간 16억원 부담 -

- 세종시 소극적 협상 강력 질타… 50% 분담률 재조정 및 광역교통 재정 부담의 잘못된 선례 방지 촉구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도담동,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제11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공주 광역BRT의 불합리한 운영비 분담구조와 시민 교통불편 문제를 지적하고, 세종시의 적극적인 분담률 재조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사업의 시급성과 행정의 신뢰를 고려해 동의안은 통과됐지만, 50% 분담률의 적정성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세종시가 운영을 전담하면서 매년 약 16억원, 6년간 같은 수준이면 약 96억원을 부담하는 구조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2년 행복청 연구보고서의 시민 설문에서 세종시민의 주요 광역이동 지역은 대전인 반면, 공주시민의 주요 광역이동 지역 1순위는

세종시로 나타났다. 공주에서 세종으로 향하는 하루 버스통행량도 1,395명으로, 반대 방향인 964명보다 약 45% 많았다.

이 의원은 “공주시민의 세종 접근성 개선에 상당한 편익이 예상되는 만큼 지역별 이용수요와 수혜 정도를 반영해야 한다”며 획일적인 50% 분담을 비판했다.

또한 하루 이용수요가 당초 6,655명에서 개통 초기 수입 산정 시 3,100명으로 적용됐고, 연간 운송비용 약 47억원 대비 예상 수입은 약 7억원에 불과하다며 수요예측과 재정 부담에 대한 재검증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공동 운행되는 세종~청주 B7과 세종~대전 M1와 달리 공주 BRT만 세종도시교통공사가 단독 운영하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어 “충남도는 분담률에 대한 의견을 적극 제시했지만, 세종시의 구체적인 협상 실적은 확인하기 어렵다”며 “동의안 통과가 소극적인 협상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충청광역연합 역시 지자체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시민 교통불편과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시비 미확보로 조치원 BRT 개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공주 BRT 운영비에 매년 약 16억원을 부담하는 것은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를 되짚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름로와 장군면 일대의 차로 축소로 출퇴근 정체 민원이 이어지고, 공주시 차고지 문제로 준공 일정마저 두 차례 연기됐다며 시민 고통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지역별 수요와 편익에 따른 50% 분담률 재조정 ▲

국비 미확보·환승손실 부담 명확화 및 이용실적에 따른 분담률 조정 의무화 ▲구체적인 협상기준 마련과 전용차로 탄력 운영 등 교통혼잡 해소대책 추진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번 50%가 향후 청주와 천안 등 다른 광역BRT의 잘못된 분담 선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공정한 분담은 책임과 편익에 비례해야 한다. 세종시는 시민을 위해 더 나은 조건을 이끌어내는 협상력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